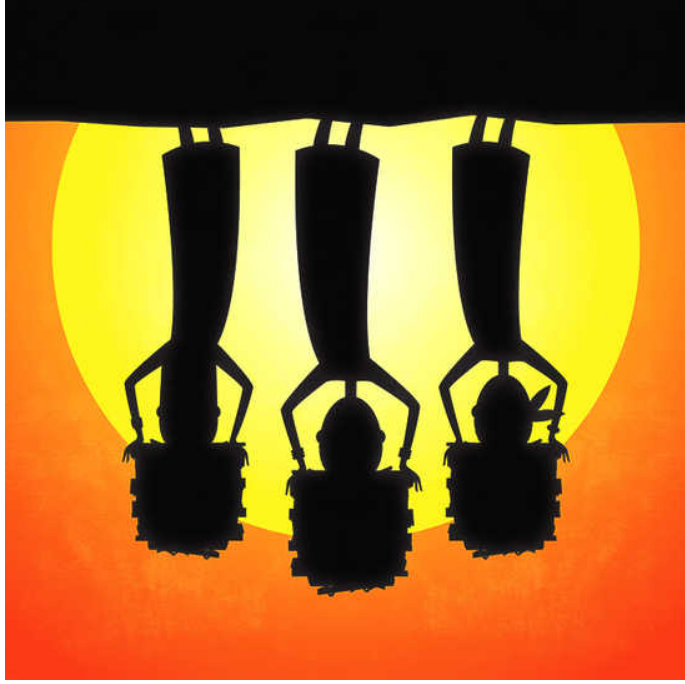


노자헬레와 세 머리카락



Tessa Welch ✎
Wiehan de Jager 📧
Jong Yong Park 📧
3
한글어 ko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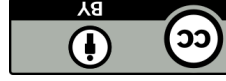


Global Storybooks

globalstorybooks.net

노자헬레와 세 머리카락

Tessa Welch ✎
Wiehan de Jager 📧
Jong Yong Park 📧



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.0 International License.
<https://creativecommons.org/licenses/by/3.0>





먼 옛날, 세 여자아이들이 나무를 가지러
밖에 나섰어요.

정말 더운 날이어서 그들은 강에 수영을 하
러 갔어요. 물 속에서 놀고 물장구치고 수
영했어요.



그제서야 개는 노지벨레가 자신을 속인 것
을 알았어요. 그는 마름모 탈리고 달려갔
죠. 그러나 노지벨레의 오빠들이 커다란 물
독이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. 개는 몸을
둘러 도망쳤고 다시는 보이지 않았어요.





갑자기, 그들은 늦은 것을 깨달았어요. 마을로 급히 돌아갔어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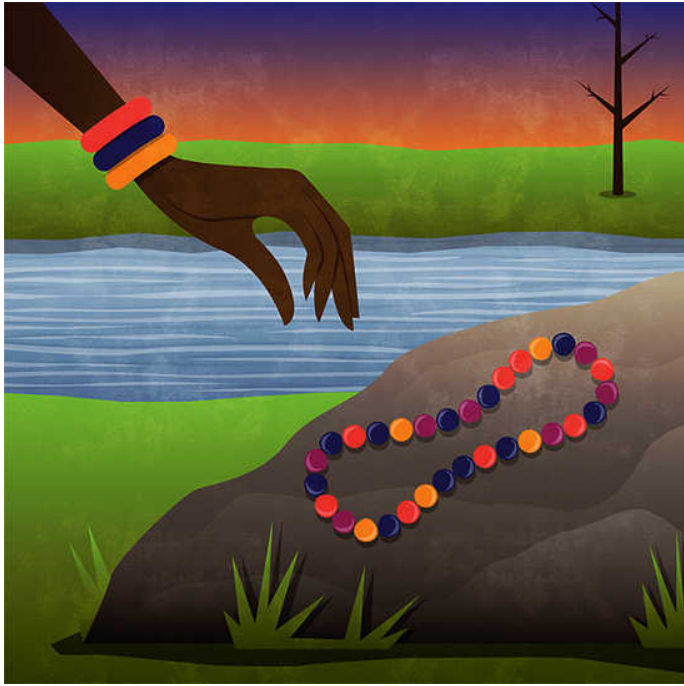
개가 돌아왔을 때, 노지벨레를 찾았어요. “노지벨레, 어디있어?” 개가 외쳤어요. “여기 있어요, 침대 아래,” 첫번째 머리카락이 말했어요. “여기 있어요, 문 뒤에,” 두번째 머리카락이 말했어요. “여기 있어요, 크랄 안에,” 세번째 머리카락이 말했어요.

집에 거의 다 왔을 때, 노지벨레는 목에 손
 를 댔어요. 목걸이를 깜빡했어요! “나라 칸
 이 돌아가!” 그녀는 친구들에게 부탁했어
 요. 그러나 친구들은 너무 늦었다고 말했어
 요.



개가 가자마자, 노지벨레는 세 머리카락을
 머리에서 뺐어요. 한 머리카락은 침대 아
 래, 하나는 곰 뒤에, 하나는 크랄 안에 두었
 어요. 그리고 그녀는 집으로 가는 최대한
 빨리 달려갔어요.





그래서 노지벨레는 강으로 혼자 돌아갔어요. 목걸이를 찾아서 집으로 급히 돌아갔어요. 그러나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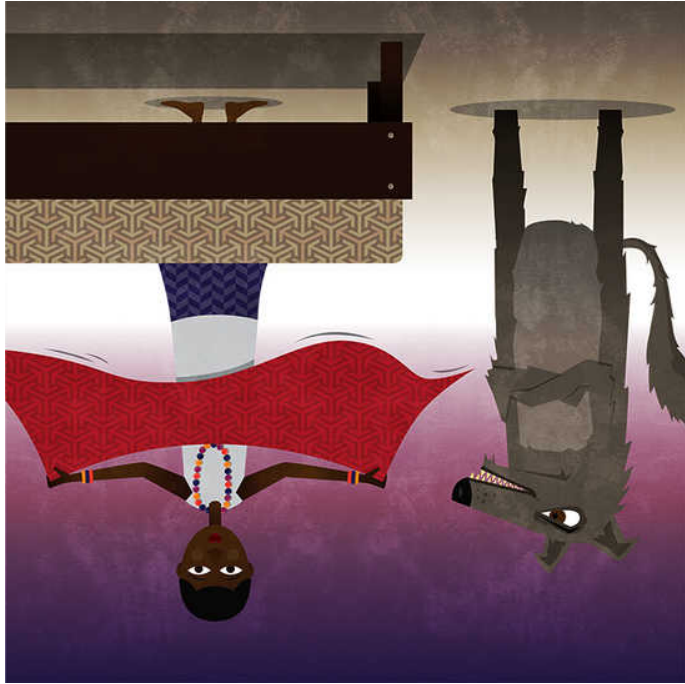


매일 개를 위해 그녀는 요리하고 쓸고 닦았어요. 어느 날 개가 “노지벨레, 난 오늘 친구들을 만나러 가야해. 내가 오기 전에 집을 쓸고, 음식을 만들고, 내 물건을 닦아놔.” 라고 말했어요.

떨리서 그녀는 한 오두막에서 불빛을 보았
어요. 그녀는 큰히 달려가서 문을 두들겼어
요.



그리곤 개가 “침대를 정리해줘!”라고 말했다
어요. “잔 개를 위해 침대를 정리해줄 것이
없어요.” “노지침례가 대답했어요. “침대를
정리해줘, 아니면 톨어버릴꺼야!” 개가 말
했어요. 그래서 노지침례는 침대를 정리했
어요.





놀랍게도, 개 한마리가 문을 열고 “무슨 일이지?”라고 말했어요. “전 길을 잃었고 잘 곳이 필요해요,” 노지벨레가 말했어요. “들어와, 아니면 물어버릴꺼야!” 개가 말했어요. 그래서 노지벨레는 들어갔어요.



그러더니 개가 “요리해줘!”라고 말했어요. “하지만 전 개를 위해서 요리해 본 적이 없어요,” 그녀가 말했어요. “요리해, 아니면 물어버릴꺼야!” 개가 말했어요. 그래서 노지벨레는 개를 위해 음식을 만들었어요.